

# 대한항공·진에어로 글로벌 항공사 위상 우뚝

## 조양호의 삶

1974년 입사이래 45년간 근무  
2003년 한진그룹 회장 자리에  
8대 뿐이던 항공기 166대 증가  
세계 43개국·111개 도시 취항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1949년 3월 8일 인천광역시에서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의 첫째 아들로 태어난 그는 서울에서 경북고등학교를 수학한데 이어 미국으로 유학해 미국 메사추세츠 주 쿠싱아카데미(Cushing Academy)를 졸업했다. 이어 인하대 공과대학 학사, 미국 남가주대 경영대학원 석사, 인하대 경영학 박사 학위 등을 취득했다.

그 후 조 회장은 1974년 대한항공 입사 후 정비, 자재, 기획, IT, 영업 등의 분야에서 일한 뒤 1992년 대한항공 사장, 1999년 대한항공 회장, 2003년 한진그룹 회장 자리에 올랐다.

조 회장은 세계 항공업계 무한 경쟁의 서막을 항공동맹체인 '스카이팀' 창설을 주도해 맞선 것으로 유명하다.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자체 소유 항공기의 매각 후 재 임차를 통해 유동성 위기를 극복했으며 1998년 외환 위기

가 정점일 때는 유리한 조건으로 주력 모델인 보잉737 항공기 27대를 구매했다.

세계 항공산업이 침체의 늪에 빠진 2003년 조 회장은 이 시기를 차세대 항공기 도입의 기회로 보고 A380 항공기 등의 구매계약을 맺었으며 2008년 7월에는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를 창립했다.

대한항공은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대한항공은 1969년 출범 당시 8대뿐이던 항공기는 166대로 증가했으며 일본 3개 도시 만을 취항하던 국제선 노선은 43개국 111개 도시로 확대됐다. 국제선 여객 운항 횟수는 154배 늘었으며 연간 수송 여객 숫자 38배, 화물 수송량은 538배 성장했다. 매출액과 자산은 각각 3500배, 4280배 증가했다.

특히 조 회장은 '항공업계의 UN'이라고 불리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1996년부터 IATA의 최고 정책 심의 및 의결 기구인 집행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이후 2014년부터는 31명의 집행위원 중 별도 선출된 11명으로 이뤄진 전략정책위원회 위원도 맡아왔다.

조 회장은 2010년대 미국 항공사들과 일본 항공사들의 잇따른 조인트 벤처로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중요한 수익창출 기반인 환승 경쟁력이 떨어지자 델타항공과의 조인트 벤처를 추진했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과 함께 상승 효과를 내 대한민국 환승 경쟁력은 다시 힘을 받았다.

그러나 한진해운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부에서 영입한 전문경영인들의 잇따른 오판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했다. 이에 조양호 회장은 한진해운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2013년부터 구원투수로 나서 1조원이 넘는 자금을 지원했다. 또한 조 회장은 한진해운을 살리기 위해 2014년 한진해운 회장직에 오르고 2016년 자율협약 신청 이후 사재도 출연한 바 있다.

올해 조 회장은 대한항공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했다. 국민연금이 철차 논란 속에서 연임을 반대했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연임 반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회장의 유족으로는 부인 이명희(전 일우재단 이사장·70)씨를 비롯해 아들 조원태(대한항공 사장·44)씨, 딸 조현아(전 대한항공 부사장·45)·조현민(전 대한항공 전무·36)씨 등 1남 2녀와 손자 5명이 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별세

### 학력

- 1964년 경북고 입학
- 1968 미국 Cushing Academy 졸
- 1975 인하대 공과대학 공업경영학과 졸
- 1979 미 서던캘리포니아대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
- 1988 경영학박사(인하대)
- 1998 명예 항공경영학박사(미국 Embry Riddle항공대)

### 경력

- 1974년 대한항공 입사
- 1980 동 상무
- 1984 동 전무
- 정석기업(주) 사장
- 1988 대한항공 총괄수석 전무
- 1989 동 부사장

- 1989 한진정보통신(주) 사장
- 1991 대한항공 수석부사장
- 1992~1999 同 대표이사 사장
- 1995 한국항공대 이사장
- 1996 국제항공운송협회(ATA) 집행위원
- 1996~2003 한진그룹 부회장
- 1996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현)
- 1999~2019 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
- 2000 한진정보통신(주) 대표이사 회장
- 2003 한진그룹 회장(현)
- 2004 국제항공운송협회(ATA) 집행위원
- 2004~2017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회장
- 2006 한국공항(주) 대표이사
- 2007 정석기업(주) 대표이사 회장
- 2008 한국·사우디아 경제협력위 위원장(현)
- 2008~2016 대한탁구협회 회장(현)
- 2009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 위원장 아시아탁구연합회(ATTU) 부회장
- 2012~2017 대한체육회 부회장
- 2013 정석인하학원 이사장(현)
- 한진칼 대표이사 회장(현)
-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장
- 2014~2016 한진해운 대표이사 회장
- 2014 국제항공운송협회(ATA) 집행위원회 위원 겸 전략정책위원회(SPC) 위원(현)
- 2014~2016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 위원장
- 2014 한·미재계회의 한국측 위원장(현)
- 2018 (주)진에어 각자대표이사 회장. (주)진에어(현)
- 2019.4.8 폐질환으로 별세. 향년 70세

연남뉴스



한진 조양호 회장(오른쪽 세번째)이 전경련 부회장으로 활동할 당시 전경련 회장단 회의에 참석한 모습. /전국경제인연합회

## 재계 “물류산업 발전 산증인” 애도물결

### “韓 세계무역 6위 대국 발판 마련”

재계가 한진 조양호 회장 별세에 한 마음으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8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외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은 조 회장 별세 소식에 애도를 이어갔다.

재계는 입을 모아 조 회장이 국내 경제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사고 '수송보국' 정신을 기렸다.

대한상외는 조 회장이 대한항공을 반세기 동안 국내 최대 항공사로 이끌었다며, 대한민국 항공·물류산업 발전에 산증인이라고 평가했다. 전경련도 조 회장이 국내 항공·물류산업을 일으켰다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 무역 규모 6위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며 아쉬워했다. 경총도 조 회장이 한진그룹과 대한항공을 단단한 글로벌 항공사로 키웠고, 우리나라 항공산업과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며 심심한 애도를 전했다. 무역협회도 조 회장이 우리나



1997년 광 대한항공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김포공항을 통해 광으로 출발하는 조양호 회장. /연합뉴스

라 무역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 왔다고 논평했다.

재계는 조 회장이 국가 위상을 높이 세우는 데에 공헌했던 노력도 높이 샀다. 조 회장은 1996년 전경련에서, 2004년 경총에서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1996년부터 전세계 항공업계 최고 기구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서 활동하면서 6월 IATA 연차총회를 국

내에서 유치하는 업적도 세웠다. 지난해 개최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도 중요한 역할을 맡았으며, 조직위원장으로 원활한 운영을 돕기도 했다.

대한상외는 조 회장이 민간 경제 교류를 통해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렸을뿐 아니라,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을 맡아 문화·체육 발전에도 기여했다고 되새겼다.

전경련도 조 회장이 전경련 한미재계회의 위원장과 한불 최고경영자 클럽 회장 등을 지내면서 국제 교류를 증진하고 우호를 강화했다고 추억했다. 경총 역시 조 회장이 국가적 행사에 공을 세웠다고 회고했다.

이어서 재계는 조 회장 별세를 안타까워하며, 고인을 기리고 유지를 이어받아 경제와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유가족과 임직원에게 애도를 전하며, 대한항공이 더욱 성장하기를 바란다기도 덧붙였다.

/김재용 기자 juk@

## ‘폐질환’ 치료 중 스트레스로 병세 악화

### 조양호 회장 병명 ‘폐섬유화증’ 추정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급작스러운 별세 소식에 그 사인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대한항공은 조 회장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한 병원에서 ‘폐질환’으로 치료받던 중 별세했다고 8일 밝혔다. 평소 앓고 있던 폐질환이 최근 대한항공 주주 결과 등에 대한 충격과 스트레스 등으로 병세가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이 회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회사는 고인의 폐질환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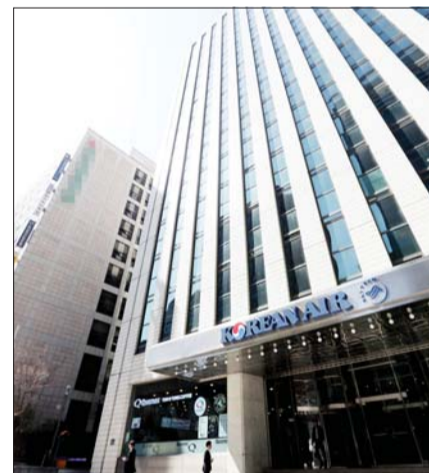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회장은 그동안 ‘폐섬유화증(폐섬유증)’을 앓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폐섬유화증은 폐가 섬유화되면서 점차 딱딱해지고 기능이 떨어져 결국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르는 질환이다. 온몸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게 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이런 폐가 굳어 산소를 혈류로 옮기지 못함으로써 호흡곤란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질환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43%, 10년 생존율이 15%에 그칠 정도로 병의 경과가 좋지 않다. 또 아직 증명된 치료 방법도 없는 실정이다. 담배를 오랫동안 피운 중년층에서 발병률이 높아 흡연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한 특정한 환경이나 바이러스, 유전 등도 원인으로 거론된다.

증상으로는 호흡곤란이 대표적이다. 폐섬유화증으로 사망한 환자의 80%가량이 극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한다.

이와 함께 기침, 청색증(저산소증으로 입술 주변이 파랗게 질리는 현상),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8일 새벽 미국 현지에서 숙환으로 별세한 가운데 서울 대한항공 서사무사옥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곤봉지(저산소증으로 손가락 끝이 둥글게 되는 현상) 등도 폐섬유화증에 동반하는 증상이다. 중증 폐섬유화 상태로 악화할수록 이런 증상은 더욱 심해진다.

오태윤 강북삼성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폐는 몸속에 있지만, 코·입·기관지와 연결돼 있어 대기 중 유해물질에 노출될 장기”라며 “유해물질의 접촉이 잦아지고, 장기화하면 폐섬유화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 회장의 경우 최근에 충격과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서 원래 앓고 있던 폐섬유화증을 더욱 악화시켰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모 대학병원의 호흡기 내과 교수는 “폐는 사람의 신체 중 가장 큰 장기이지만,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한 편”이라며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항생제조차 잘 듣지 않기 때문에 폐섬유화증의 악화속도가 더욱 빨라져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이어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